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10
2011. November

부산대표 관광지 동백섬
60여년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오다

부산시, 시민 친수공간으로 재정비,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www.bta.or.kr



대표이사 회장 정 판 덕

“KTX와 함께하는 거가대교 낭만여행”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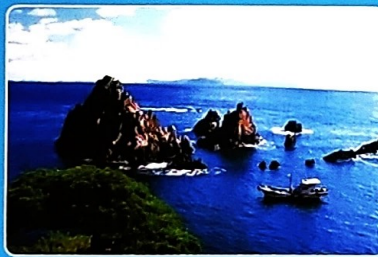
실속있게 떠나자! 해외여행~



내생애 한번뿐인 허니문~



겨울 스키는 새부산과 함께~



특별한 낭만이 있는 섬여행~



테마가 있는 제주도여행~

- 출 발 일 : 매주 수, 토, 일, 공휴일
- 포 함 사 항 : 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 입장료, 인솔비
- 불포함사항 : 중식, 개인경비
- 요 금 : 수요일 20,000원 / 토, 일, 공휴일 25,000원

일정	시간	새 부산관광 일정	식사
제 1 일	09:00	교대 국제신문 앞	자유 중식
	09:10	연산동 목화예식장 앞	
	09:30	서면R KT 맞은편 (서면역15번출구)	
	10:00	부산역 스타일웨딩홀 앞 (KTX 107번 열차) 가이드 미팅! 집결시간을 잘 지켜 주세요. ^^ 부산 - 거제 잇는 거가 대교 고고생~~~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2004년 12월 첫 삽을 뜨지 6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동과 거제시 강목면을 연결하는 길이 8.2km 폭 20.5km의 4차로로 건설되었으며 총 연장 8.2km 가운데 해저 침매터널 3.7km 사장교는 4.5km입니다. ▶부산에서 거제까지 약 140km였던 구간이 약 60km로 단축되었어요. ▶새로이 개통된 거가대교를 신나게 달려 보아요~	
	12:20	학동몽돌해수욕장 도착 및 자유시간 ▶학동몽돌해수욕장은 거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몽돌 가득한 긴 해변에서 잠시 쉬어 가요~ 개별 중식 (인근 식당 이용하세요...^^)	
	13:30	바람의 언덕 / 신선대 도착 및 자유시간 ▶1박2일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바람의 언덕에서 추억을 만드세요. ▶신선대에서도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 절경에 폭 빠져 보세요~	
	15:00	차량집결 및 인원점검	
	18:30	부산도착 예정 (KTX 160번 열차) / 부산역 - 서면R - 연산R - 교대	

최신형 28/45인승 버스



예약 문의 051)851-0600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역 14번 출구) 앞

BEETLE JR KYUSHU JET FERRY



부산에서 1시간10분, 보물섬「대마도」
안전, 신속, 쾌적한 승선감

비틀 「부산-대마도」 신규취항

2011년 10월1일



BEETLE

JR 규슈고속선주식회사 부산지점 600-014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15-3번지 Tel.051-469-0778 Fax.051-469-0787



대표이사 정판덕

SBT TOUR (주) 새부산관광 TOUR

www.saepusan.co.kr



여행,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는 곳

새부산관광

We would do our best for people's pleasure and comfortable travel



NAVER

새부산관광

검색

부산을 대표하는 항토 여행사 새부산 관광투어에서 휴식과 편안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설원위의 질주 "하이원"



여행 즐기기 "테마여행"



생애 단 한번뿐인 "허니문"



알뜰하게 "해외여행"



테마가 있는 "제주도"



아름다운 "섬여행"



"전세버스"로 편안하게!

SBT TOUR (주) 새부산관광 TOUR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726-17 연산R 지하철 14번 출구 앞 새연산빌딩 1층
Tel. 051) 851-0600 / Fax. 051) 851-3875
E-mail. saepusan@hanmail.net

고객과의 만남, *아름과의 만남* 의 경영이념으로 새부산 관광투어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합니다.

발행·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혜식, 이영규, 김동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희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1년 10월 31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동광동4가 18-9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브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프지 _ 동백섬

- 05 세계 관광의 날
- 08 영화의 전당 - 두레리움,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 10 제7회 부산세계 불꽃축제
- 11 2011년 부산항 빛 축제
- 12 제66회 유엔의 날
- 13 동백섬 60년만에 시민품으로
- 14 센텀시티 APEC 나루공원
- 16 외국인 안내 위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워킹가이드
- 18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으로 가는 해상항로 만들자
- 20 바다위 비행기 '비틀호'
- 22 부산진 영상문화테마거리
- 24 부산 갈매길 축제
- 25 부산 금정산 금샘 & 도심형 드림랜드
- 26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 28 가을둘레길 동행기
- 30 나가사키 펑귄수족관
- 32 칼럼 <기부문화>
- 34 전설의 고장 기장 장안을 대릉마을
- 36 호텔가소식
- 38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 40 부산관광안내, 교통안내, 지하철 노선도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제38회 세계 관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38회 관광의 날 행사가 지난 26일 시내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행사는 뜻깊은 세계관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기우 경제부시장, 박종수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튀티엔 훙 타이페이 총영사, JR규슈 마치 타카치(町孝)대표, 고광철 관광협회 명예회장, 관광관련학과교수 등 관광산업 경영주,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근후 관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광산업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지향적 산업이며,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성장 동력 산업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광협회 회원과 함께 우리가 저력있는 관광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산관광의 새로운 도약과 혁신을 위해 합심, 단결합시다"라고 다짐하였다.



제38회 세계 관광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근후 협회장 기념사 전경

제38회 관광대상 수상자

정 판 덕 (주)새부산관광투어 대표이사
마치 타카시 JR규슈고속선(주) 대표취체역사장

● 부산광역시시장 표창

장 명 자 부산롯데호텔 객실예약팀 지배인 (종사원부문)
허 진 관 캐슬비치호텔 총지배인 (종사원부문)
박 흥 수 리베라호텔 총 지배인 (종사원부문)
이 병 준 (주)한국청년여행사 상무 (종사원부문)
홍 성 미 (주)토성투어 실장 (종사원부문)
옥 서 정 (주)진성관광여행사 대리 (종사원부문)

●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안 병 문 (주)누리투어 대표이사 (경영주부문)
윤 태 일 부산롯데호텔 식음료팀 지배인 (종사원부문)
박 창 환 해운대센텀호텔 마케팅 부장 (종사원부문)
윤 재 필 파라다이스호텔부산 마케팅 팀장 (종사원부문)
정 정 아 (주)새부산관광 차장 (종사원부문)
안 용 준 신세계센텀시티 과장 (종사원부문)

●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표창

정 순 규 (주)케이제이에이투어 대표이사 (경영주부문)
김 석 만 시티투어부산 대표 (경영주부문)
김 광 민 씨클라우드호텔 마케팅 지배인 (종사원부문)
최 원 석 부산아쿠아리움 관측지배인 (종사원부문)
최 성 희 한국통역안내사협회 부산지부 회장 (종사원부문)

●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감사패

나 침 광 주한국대북대표부 부산관사치 치장
최 원 열 국제신문 문화사업국장
최 주 호 부산여자대학 외식조리개일 교수

관광대상 수상 새부산 여행사 대표이사 정판덕

올해 영예의 관광대상은 (주)새부산여행 대표이사 정판덕씨가 수상했다. 정대표는 경남의령에서 출생, 의령고등학교를 졸업,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1974년 신아관광여행사 입사, 산양관광, 부일관광, 아주관광, 대우관광, 부산고속관광에서 실무경험을 거치면서 열악한 여행사의 경영과 도산 등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부산 대표 여행사를 만들기 위해 1991년 새부산여행사를 설립, 1995년 전세운송사업을 설립으로 20년간 꾸준한 성장과 내실있는 경영으로 현재 약 90여명의 직원들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왔다.



이근후 관광협회장으로부터 관광대상 수상



먼저 제38회 세계관광의 날을 맞아 관광인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8년전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친구가 준 여행사 주소 한 장을 딸랑 들고 무작정 부산으로 올라 왔습니다. 1974년 8월 광복동에 소재한 신아관광에 입사한후 38년간 관광업에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업을 알고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비전을 보고서 시작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봉급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뛰어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고객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IT, MEDIA 등의 발전으로 고객층 형성이 빠르게 생성되었다, 빠르게 와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당시는 오직 발품을 팔아야만 가능한 시대라 격세지감을 많이 느낍니다.

봉급생활을 거치면서 열악한 여행사의 경영과 도산 등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부산의 대표 여행사를 만들기 위해 1991년 새부산여행사를 설립 1995년 전세운송사업을 설립 20년간 꾸준한 성장과 내실 있는 경영으로 현재 약 90여명의 직원들이 뚝뚝뚝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는 새부산여행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뒤처지 않기 위해 몇가지를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 열정, 저는 아직도 성공한 삶은 아니지만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열정없이 성공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긴안목, 당장의 수익을 보고서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시스템구축, 능력있는 인재 발굴, 공격적 마케팅, 꾸준한 직원 교육, 자가 버스 정비, 운영체계 구축, 자가버스 주유소 시스템구축, 대형버스 60대를 주차할수 있는 자가 주차장 구축.

셋째. 수익을 위한 과감한 재투자, 수익과 무관한 부분에는 근검 절약을 향후 가능한 수익수요처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넷째. 비수기를 기회로, 아시다시피 관광업은 성.비수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새부산은 모든 시스템이 직영이라 많은수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비수기 타파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무주, 하이원등 스키장 시도였습니다. 당시 부산의 스키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부산에 스키 붐을 일으키는데 나름 일조했다 생각합니다.

다섯째. 시대에 맞게 변화, 물론 OFF-LINE 광고에도 일부 취중을 하고 있지만 ON-LINE에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스마트폰의 혁명에 맞추기 위해 어플 등에도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브랜드 이미지 관리. 이상과 같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오직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 다하는 골프도 이제 막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38회 세계관광의 날을 맞아 관광인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광업에 종사하는 후배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자 오직 한길 관광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 한번 과분한 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관광대상 수상 JR큐슈고속선(주) 대표이사 마치 타카시(町孝)

올해 영예의 관광대상은 JR九川高速船(株) 代表理事 마치 타카시(町孝)씨가 수상했다. 마치 타카시 대표는 1950년 5월 4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출생, 1973년 야마구치 대학을 졸업, 같은해 4월 일본국유철도에 입사했다. 2003년 하카타 역장시절 전역에 한글안내판 표기로 한국관광객인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2005년에는 하우스텐보스 대표를 맡아 한국인 스텝을 채용했으며, 2007년 JR큐슈이사를 거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리고, 2010년 6월부터 JR큐슈고속선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부산~하카타항로 취항에 이어 부산~대마도항로를 신규 취항하는 등 비틀이 한일교류발전에 양국의 가교가 되도록 의욕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몰두하고 있다.



이근후 관광협회장으로부터 관광대상 수상

현재 울산대학교와 세명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부산여자대학에서 강연하는 등 한일 양국의 관광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3월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원전사고」에 대해 일본인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과 동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는 한국의 여러분에게 큰 심려와 고통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이근후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모든 여러분들께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대지진피해자들의 지원과 위로를 위하여 성금을 모아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방문하는 외국손님들을 늘리기 위해 일본정부로부터 임명받은 63명의 「VISIT JAPAN 대사」 중 한사람으로서 외국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태세, 정비 그리고 고객을 환대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의 배양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일간 교류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부산광역시 관광 부문에 관련된 모든 여러분들과는 15년전부터 한일해협관광진흥회의 및 아시아 게이트웨이의 일본 큐슈측 사무국책임자 또는 그 일원으로서 친밀하게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과 같은 훌륭한 상을 수상할 정도로 저의 공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가 금번에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런 명예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솔직히 기쁘면서도 많이 놀랐으며 또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

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추천해 주신 관계자 모든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종다양(多種多様)하게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도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하여 너무나도 매력적인 도시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산과 인연을 가진 15년전 당시에는 아직 경주 등으로의 관광여행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부산시에서 완결이라는 여행은 극도로 적었습니다만, 현재는 국제영화제와 세계불꽃대회 등의 많은 매력적인 이벤트 개최가 수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세계에 자랑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는데 등 타 도시나 관광지로 가지 않아도 좋다. 부산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다고 하는 손님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광발전에 관련해 오고 계시는 부산광역시 여러분의 진력과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저 또한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감격을 잊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분발하여 노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쪼록 지금과 같이 변함없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영화의 전당' 두레리움 개관 세계 최대 지붕 눈길 끌어 "자체가 그림 · 영화"

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용관으로 쓰일 '영화의 전당' 개관은 지난 16년간 그려온 '영화도시 부산'의 화룡점정"이라며 "이로써 영화도시 부산과 부산국제영화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개관식에서 말했다.

1678억원을 들인 이 건물은 해외 유명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공모에서 당선된 오스트리아의 쿠프 헤멜블라우사가 헤체주의 형식으로 설계했다. '영화의 전당'은 ▲지하 1층~지상 9층인 '시네마운틴' ▲지하 1층~지상 4층인 '비프힐' ▲거대한 지붕으로 구성된 '빅루프' ▲시네마운틴과 비프힐 사이 야외광장과 그 위를 덮고 있는 스킴루프(9.2~120m×65.8m) 등으로 이뤄져 있다.

헤체주의 형식인 '영화의 전당'은 건물 그 자체로 그림이고 영화다. 우선, 162.53m×60.8m(2994평, 축구장 2.5배) 크기의 '빅루프'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붕은 기네스북에 등재가 추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 그런데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작은 몸통이 지탱하고 있다. 이슬아슬, 위태위태하다.

하지만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 순간 최대풍속 초속 65m의 강풍, 적설량 1m 이상의 폭설에도 건드릴 수 있다. 초대형 태풍 등기상이변이 발생할 경우 땅 밑에서 자동 10단 보조기둥이 올라와 지붕을 떠받친다. 출렁이는 파도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지붕 하단부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시설이 설치돼 다양한 빛 공연이 가능하다. 형형색색의 LED 전구가 4만2600개나 부착돼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했다.

벽과 기둥, 건물 간 경계의 개념도 모호하다. 안이 밖이고 밖이 안이다. 건물의 선이 반듯하지 않고 휘어져 있다. 산(시네마운틴)과 언덕(비프힐), 바다(빅루프)가 서로 감싸고 부둥켜 안고 있는 형상이다. 시네마운틴 안에는 '하늘연극장'(841석)과 중극장(413석), 소극장 2개(각 213석)가 있다. 이들 극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음향·영상 설비를 자랑한다.

특히 '하늘연극장'은 탈착이 가능한 조립식 무대에 '노트르담의 꼽추', '캣츠' 등 고품격 영화, 뮤지컬, 오페라를 공연할 수 있다.

이효영 기자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영화의 전당'. 길이 162.53m, 너비 60.8m로 세계 최대 규모의 캔틸레버형 지붕에 설치된 4만2600조(1조 3색등)의 LED 조명이 환상적인 밤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전 세계 최초 개봉작 135편, 70개국 307편 영화상영

지난 6일 아시아 최대의 영화축제인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영화의전당 야외상영장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영화애호가들과 배우 등 영화 관계자, 시민 4500여 명은 이날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첫 행사를 지켜봤다.

이날 개막식은 오후 6시께부터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밟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개막식에는 '오직 그대만' 주연배우 소지섭, 한효주, 등 많은 배우들이 참석했다.

배우 입장이 끝난 뒤 영화의전당 공사 과정을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했고 예지원 엄지원 두 여배우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 개막 선언 후 30초 동안 불꽃놀이가 진행되자 개막식 열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약 25분간 진행된 개막식이 끝나고 야외상영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개막작인 '오직 그대만' 이 상영되면서 9일간의 영화바다 향해가 시작됐다.

올해 BIFF는 영화의전당 개관과 함께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수장으로 나서 처음으로 치르는 영화제로 사실상 BIFF 2기로 불린다. 아시아필름마켓과 BIFCOM(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을 처음으로 통합해 벅스코에서 개최하며 마켓을 강화했다. 또 연구·학술 기능을 추가해 세계적인 영화석학들이 참가하는 부산영화포럼도 여는 등 한 단계 더 도약을 꿈꾸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상영관이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해운대에 집중해 영화애호가들이 더욱 편리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 영화제 상영작은 총 70개국 307편이다.



▲일본의 저명한 작가 야스시 이노우에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부산 국제영화제(BIFF) 폐막작, 내 어머니의 연대기



광안리앞바다 열정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부산 멀티 불꽃쇼가 8만 발의 축포, 초대형 희망불새, 타상연화가 압권

올해로 7번째 열리는 부산세계불꽃축제가 화 달라졌다. 초대형 '희망불새' 등 불꽃이 더 화려해졌다.

올해 불꽃축제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개최됐다. 3일간 열리던 예년에 비해 기간이 대폭 늘었다. 제류형 문화관광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다.

메인이벤트인 불꽃쇼도 22일(토) 해외불꽃경연대회와 29일(토) 부산멀티불꽃쇼로 분산시켰다.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두 차례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일본의 5만급 크루즈선도 22일과 29일 각 1천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부산에 두 번 입항했다.

불꽃쇼의 전야인 21일 사랑나눔 레전드축제(슈퍼모텔선발대회)와 28일 한류 비치콘서트 뽕뽕, 자이니치, 디아라 등 한류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비치콘서트는 광안리 백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메인이벤트인 불꽃쇼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22일 8만 발, 29일 8만 발 등 총 16만 발의 불꽃이 터졌다. 지난해 13만 발에 비해 3만 발이 늘었다.

지난 22일 행사는 미국과 폴란드, 일본, 중국 등 4개국이 참가하는 불꽃경연대회 형태로 열렸다. 1개 팀이 15분간 불꽃을 연출하고 4분간 쉬었다 다른 팀이 15분간 연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6명과 시연평가단 100명이 행사 직후 심사를 해 순위를 가렸다.

하이라이트는 29일에는 '최정란 멀티 불꽃쇼'가 90분간 쉬지 않고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불꽃쇼였다. 광안대교를 활용한 국내 최장 길이인 1km 나이가카라 불꽃쇼가 펼쳐지고, 국내 최대 크기의 25인치(63.5cm) 타상연화 2말이 피날레를 장식했다. 1말에 5천 만 원이 넘는 타상연화는 개화직경이 무려 400m에 달한다.

올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은 불꽃은 캐릭터 불꽃인 초대형 '희망불새'다. 날아다니는 불새 모양의 불꽃으로 지난해에는 2.5m 크기의 희망불새 3마리가 연출됐는데 올해는 총 7마리가 연출됐다. 그 중 1마리가 5m 크기의 초대형이다.

올해 예상 관람인원도 9일간 3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로 잡고 있다. 교통통제는 22, 29일 양일간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며, 광안대교 전면통제는 29일 오후에만 실시된다.

지난해 백사장 중앙부 초창관람석이 위험감을 조성하고 시민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올해부터는 아예 없애 버렸다.

다만 해외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빈락회센터 쪽에 3천 석의 관람석을 마련해 제공했다.



'8만 발 축포' 더 커지고 더 화려해졌다

2011, 부산항 빛 축제

중구·서구·영도구, 빛을 통한 문화 관광축제
11월 10일~20일(10일간)까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제2회 부산항 빛 축제 '하늘 빛 길'이 11월 10일~20일(10일간)까지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중구, 서구, 영도구 3개구가 빛을 통한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므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부산 바다위에 펼쳐지는 빛의 퍼포먼스와 용두산 타워의 레이저 서치쇼, 중구와 서구, 영도구를 하나로 잇는 레이저쇼 등 화려한 빛으로 부산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제 조명한다.



2010년 남포동거리의 화려한 빛 축제

부산, 도시 홍보 마케팅 최고 도시에

부산이 도시홍보 마케팅 최고 도시에 꼽혔다. 해외바이어와 미디어 전문가가 선정된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4~6일 태국 방콕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IT&CMA 전시회'에서 도시 홍보마케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컨벤션뷰로, 부산지역 호텔 관계자로 구성된 부산 홍보단은 이번 전시회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부산 홍보대사이자 한류열풍의 주역인 배우 최지우의 '러브 스토리'인 부산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포토존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뜬국제컨벤션관광

도시 부산뜰 이미지 포스터를 전시회장 곳곳에 비치해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끌었다.

IT&CMA 전시회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관광 전문지 발간 업체인 TTG 아시아 미디어가 주관하는 행사. 세계 각국 MICE(회의Meeting, 포상 관광 Incentive, 대규모 국제회의Conventions, 전시회 및 이벤트 Exhibitions)를 결합한 용어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의 관광 컨벤션 산업전이다. 부산이 받은 최우수 도시 홍보상 은 해외 바이어와 미디어 전문가들이 직접 뽑아 더욱 의미가 깊다.

부산시청 옥상정원 '하늘마당' 시민에게 개방

부산시는 시청사에 3천3592㎡의 부산시청 옥상정원 '하늘마당'을 내년 3월 개방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시는 이곳에 국비와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소나무 등 수목 36가지 6천872그루, 초화류 48가지 1만3천314그루를 심었다. 허브원, 생태습지, 암석원, 논 체험장, 축제마당 등도 조성했다.

특히 옥상녹화에 적합한 다육식물을 심어 사계절 푸르고 꽃이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과 고추, 방울 토마토 등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논 체험장, 텃밭도 만들었다.

부산시는 "시청사에 조성된 자연생태 공간을 시민과 함께 나누

고, 옥상정원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민 탐방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하늘마당을 적극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될 하늘마당 탐방프로그램은 부산시 공원녹지민관협력단체인 (사)부산그린트러스트에서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2차례 진행된다.

전문 환경해설사가 배치돼 하늘마당의 다양한 수목, 초화와 생태 해설, 옥상녹화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제66회 유엔의 날

대연동 유엔기념공원 6·25 참전용사들 넋기려

올해로 66회를 맞는 UN의 날을 맞아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정부관계자, 주한외교사절,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집다큐멘터리 상영과 어린이합창단·국악 관현악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헌화·조총·묵념 등 추모식을 열어 세계평화를 위해 목숨을 던진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3년동안 한국전쟁 기간중, 유엔 25개국 175만 4,400여명이 참전해 4만 890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은 유엔창설 이래 자유수호라는 공동의 목적과 정의실현을 위해 유엔군이 파견된 최초의 전쟁이다. 전쟁중 유엔군 사령부는 인천·개성 등 6곳의 임시 묘지에 유해를 안장했다가 1951년 1월 18일 묘지를 조성하고 4월 5일 봉납했다.

전쟁이 끝나자 한국 정부는 그들의 값진 희생을 영구히 추모하고 묘지를 성지로 지정할 즈음 결의하고 재한 유엔기념 묘지설치를 제안했다. 1959년 11월 유엔기념묘지 설치 및 유지 건립을 위한 대한민국과 유엔

과의 협정이 체결되면서 유엔기념 묘지가 탄생했다.

현재 한국군을 포함 2,300여명이 안장돼 있다.

부산시는 추모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UN기념공원 주변을 국화꽃 3천700여 송이로 장식해 참전용사를 기리는 국화꽃 전시회를 열었다.



남구 대연동 UN 기념공원

용두산공원에 프리포즈존 생겼다

'연인, 부부 사랑고백하는 명소' 부상



어르신들의 소일터, 비둘기 천국쯤으로 여겨졌던 용두산공원이 최근 프리포즈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서울의 남산타워나 한강 시민공원, 청계천 '청혼의 벽' 과 달리기간 부산에는 딱히 프리포즈 명당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와 더불어 부산의 바다와 아름다운 야경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커플들을 용두산공원으로 이끌어 연인, 부부들의 사랑고백하는 명소로 부상되고 있다.

문의 : 부산시설공단 www.bisco.or.kr

동백섬 60년만에 시민품으로

부산시, 시민 친수공간으로 재정비,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



해운대 동백섬 군 부두시설 부산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시는 군 부두를 포함한 동백섬 전체를 시민 친수공간으로 재정비,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해운대 동백섬 군 부두가 60년 만에 부산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지난 18일 동백섬 군 수영부두의 대체시설을 다른 장소에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부두를 넘겨받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국군수송사령부와 체결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동백섬 들목 오른쪽에 위치한 땅을 시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 노력을 펼쳐왔다.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군 부두는 6·25전쟁 직후인 1951년 건설, 지난 60여년간 군시설로 사용해왔다. 3만5천105㎡ 규모의 이 땅은 지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부분개방, 지금은 낚시터와 무료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부산시는 협약을 계기로 군수영부두를 포함한 동백섬 전체를 시민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군은 수영부두를 당초 부산강서구가덕도 백옥포 쪽으로 옮기기로 한 방안도 백지화, 새로운 부지를 찾기로 했다. 군 내부에서는 진해 쪽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옥포에서 천성만에 이르는 해역 137만㎡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확정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민간 항만시설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일대를 항만시설로 개발할 경우 인접한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부두와 배후물류단지, 물론, 앞으로 들어설 신항 유류중계기지, 대형선박 수리조선단지 등과 어우러져 부산신항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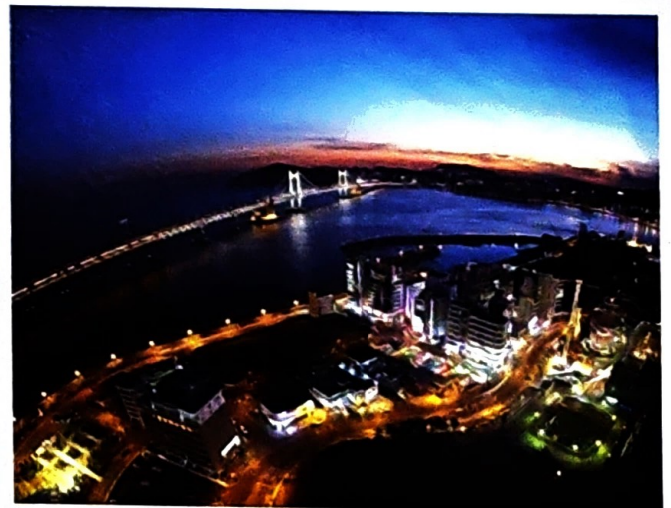
제1회 광안리비치 카페 페스티벌, 테마거리에서 열려

30여 개의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총 200여 개의 카페와 레스토랑의 카페거리가 형성

부산세계불꽃축제 기간인 21일부터 29일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광안리만의 독특한 카페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제1회 광안리비치 카페 페스티벌을 해변 카페와 테마거리에서 개최했다.

현재 광안리 해변에는 30여 개의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비롯해 총 200여 개의 카페와 레스토랑이 입점해 전국 최대 규모의 카페 거리가 형성돼 있다. 광안리의 자생 문화단체인 '위드광안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해수욕장 주변 카페 등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커피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로스팅'이나 커피 맛을 감별하는 커피(Cupping) 이벤트 등이 마련되며 대륙별로 다른 커피 원두를 전시 판매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보물찾기와 요트체험도 마련됐다.



광안리 야경사진

센텀시티 APEC 나루공원 '녹지공간' 변신

센텀시티 APEC 나루공원이 '영화의 전당' 과 조화를 이루는 명품 녹지공간으로 변신했다.

APEC 나루공원은 2006년 부산에서 개최한 APEC정상회의를 기념해 2006년 10월 조성됐다. 수영강을 따라 산책로와 휴식공간이 잘 갖춰져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다.

푸른도시개발사업소는 답답해 보이던 공간의 일부 관목을 이식하고 잔디를 심었다. 수목 주변 멀칭작업(흙이 보이는 공간을 나무를 이용해 덮는 작업)을 통해 더욱 넓어 보이도록 했고 시야가 트이는 느낌이나 도록 했다.

나루공원 초입의 광장주변에는 대형 느티나무를 심었다. '영화의 전당' 전면부에는 소형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루공원을 꾸몄다.

특히, 그동안 공원이나 녹지대에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존 수목과의 조화 및 방문객에게 여유와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불량나무를 포함해 7천여그루의 크고 작은 나무를 뽑아 이식하고, 해당 지역은 어리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다.

또 생육이 저조한 나무에 조경용 비료 3kg을 살포하고 가지치기와 병충해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를 주는 등 관리작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



수영강변 전망대 내년 3월까지 2곳 조성

부산의 대표적 명품산책 · 관광 코스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

부산 '영화의 전당' 을강 건너에서 볼 수 있는 조망명소가 생긴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용관인 영화의 전당 맞은 편인 수영1호교와 좌수영교 사이 수영강변도로에 테마거리와 전망대 2곳을 내년 3월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19억8000만원. 시는 전망대 조성을 수영강변도로 너비를 기존 10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와 연계해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길이 80~100m, 너비 10~14m 크기의 테마형 전망대가 설치되면 부산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영화의 전당 전경은 물론 아간에는 빅루프 아래에

설치된 12만 개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연출하는 화려한 빛의 향연을 아름다운 수영강 풍광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대 설치 예정지 인근에는 수영 현대아파트와 수영 협성르네상스 아파트가 있어 입주민들의 운동 및 휴식 공간으로도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수영강변 테마형 전망대가 조성되면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수영강을 가운데 두고 수영1호교~전망대~좌수영교~영화의 전당~APEC 나루공원을 돌며 산책할 수 있게 돼 부산의 대표적 명품 산책 · 관광 코스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의전당~해운대 해수욕장~미포간 BIFF로드 조성키로

영화의전당에서 해운대 해수욕장~미포까지 BIFF로드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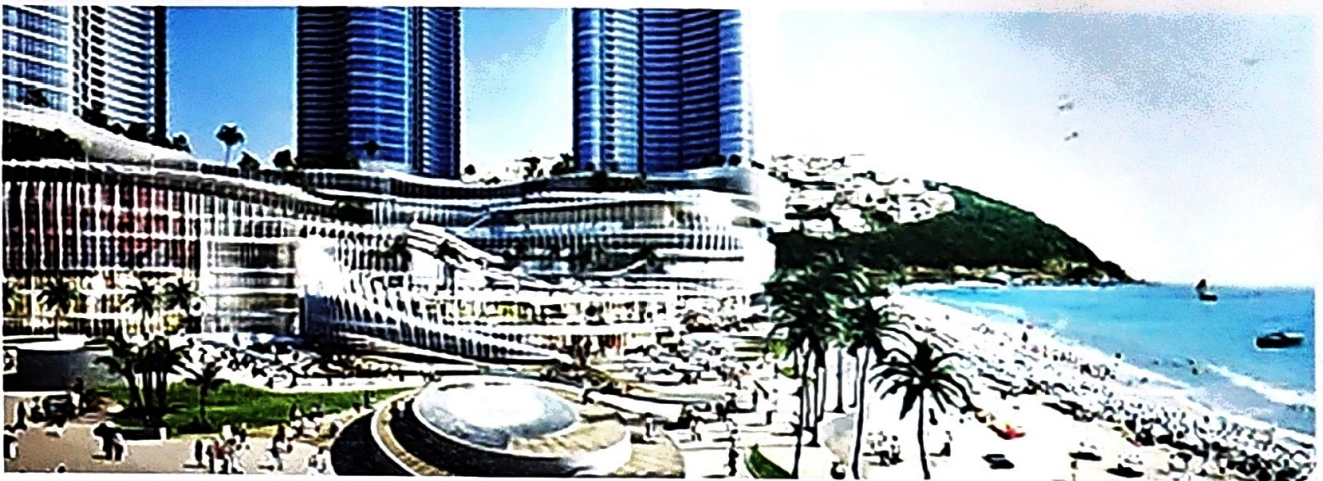
해운대구는 14일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함께 센텀시티 '영화의전당'에서 해운대해수욕장을 거쳐 미포까지 이어지는 8km 거리를 BIFF로드'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거리를 제주도 '올레길'처럼 부산국제영화제를 상징하는 거리로 새롭게 단장하는 셈이다.

해운대구는 이 구간에 BIFF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한편 영화제 포스터를 설치해 영화제가 막을 내린 뒤에도 거리를 걷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BIFF 기간에는

영화인을 초대해 BIFF로드 걷기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청 측은 "영화의전당 개관으로 어느 해보다 알찬 내용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곧 막을 내리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과 영화마니아는 BIFF로드를 걸으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산의 새 랜드마크로 떠오른 '영화의전당'과 함께 BIFF로드'는 영화·영상도시로 발돋움한 해운대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 해운대에 6성급 호텔 2곳 생긴다



최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해운대 미린시티에 6성급 호텔인 '파크하얏트 부산'이 2013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호텔업체인 하얏트 브랜드를 사용하게 될 이 호텔은 수영장과 광안대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요트경기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은 전체 면적 4만9천217㎡에 지하6~지상 34층, 268실 규모로 호텔을 건립된다고 한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대영전쟁박물관, 삼성동 아이파크 센터 등을 디자인한 대니얼 리베스킨트가 호텔 설계를 맡았고 내부 장식은 일본의 슈퍼포테이토사가 담당한다.

또 해운대해수욕장에 건립되는 108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인 해

운대관광리조트에도 6성급 호텔이 들어선다.

해운대관광리조트 3개 초고층 건물 중 108층 랜드마크타워에는 관광호텔 300실과 일반호텔 380실이 운영된다.

국내에 있는 대형 호텔이 관광호텔의 운영을 맡아 6성급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워터파크, 콘도, 문화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된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올 연말 착공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운대 지역에 6성급 호텔이 들어섬으로 인해 관광 인프라가 늘어나게 돼 기존 특급호텔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민지 객원기자

외국인 안내 위한 움직임은 관광안내소, 워킹가이드 활동

부산역, 김해공항,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인 능통자들 관광안내

부산의 주요 관문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관광의 모든 것을 안내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워킹가이드'가 활동에 들어갔다. 광역시와 부산관광컨벤션뷰로는 최근 워킹가이드를 부산역,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관문에 배치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내년 6월 개최하는 제95차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국제수준의 관광수용 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것. 국내외 관광객 편의 도모는 물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부산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일겠다는 것이다.

워킹가이드는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가 가능하고, 관광 컨벤션 전문교육을 수료한 투어 코디네이터다. 이들은 토·일요일마다 부산역, 김해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활동한다. 관문지역을 돌며 외국인의 언어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주 임무. 외래방문객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안내홍보물 배부 같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는 2009년 12월부터 광복·남포동 일원에 1일 4명씩 워킹가이드 배치를 시작, 지난해 5월부터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에 영어·중국어·일어 전문 관광안내원 3명을 추가 배치, 외국인 관광안내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효영 기자



김해국제공항, 부산국제공항으로 명칭 바뀌야

부산시의회가 김해국제공항의 명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바꾸기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보시환경위원회는 부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해국제공항 명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 건의안은 '지난 1978년 행정구역개편으로 김해국제공항이 부산시로 편입돼 김해군에 포함되었던 시기는 단 1년6개월에 불과한데도 30년이 넘도록 김해라는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며 '부산항 명칭 브랜드 가치는 연간 1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부산항에 비교하더라도 부산시는 지난 30년 동안 잘못된 공항 명칭으로 약 3조 원 이상의 브랜드 가치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또 '전세계적으로 행정구역명과 공항 명칭이 다른 곳은 극히 드물며 김해공항은 도시명과 국제코드명을 각각 'BUSAN' 'PUS'로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부산국제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도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칭 변경에 드는 비용보다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방식 대폭 수정

신청 건수 제한 · 중복 지원 배제로 우수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정기적 육성계획

부산문화재단의 내년 부산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방식이 크게 바뀐다. 내년부터 바뀌는 문화예술지원사업 방식은 이렇다.

먼저 신청 건수를 제한한다.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는 신청 건수를 2건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부산예술인총연합회 및 각 협회(부산지회)와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및 각 분과위원회는 3건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올해까지 신청 건수 제한은 없었다. 부산문화재단 측은 “몇몇 단체에 지원사업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문화예술지원사업에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산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만 신청자격을 준다. 활동 증빙자료가 없으면 심의에서 배제한다. 부산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는 예술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부산문화재단 측은 “특히 현장의 전업 예술인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부산시 등 관계 지원기관과 정밀한 교차검증도 한다. 부산문화재단 측은 “같은 사업뿐 아니라 연계사업도 포함해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복 지원을 받았다면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투입된 예산은 환수할 계획이다. 반면 우수한 문화예술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도 결과가 좋다면 계속 지원한다. 올해까지는 3년 연속 지원 단체는 가급적 배제했다. 부산문

화재단 측은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 방식도 변경된다. 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예술가나 문화단체가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OCR 카드로 채점표를 작성해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이다. 현재는 심의위원이 모여 채점하는 방식이다. 심의위원 구성도 바뀐다. 지역협력형사업을 심사할 때 심의위원은 타 지역 전문가를 40%까지 넣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지역 전문가만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했다. 무기명(신청자) 작품 심의 부분도 현행 문학에서, 내년에는 미술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창작극(연극)을 심사할 때는 대본 심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들의 예술적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민원을 받아 온 인터뷰 심의는 폐지한다. 내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다. 장르별로 신청기간이 달라서 부산문화재단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은 올해 2012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시스템 개선 공청회를 두 번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9일 오후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시스템 개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문의 051-744-7707

에어부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획득

에어부산(대표 김수천)은 최근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은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정부 유일의 서비스품질 인증제도. 학계 및 업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심사, 현장평가, 고객평가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에어부산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인증마크를 획득해 서비스 경쟁력 측면에서 동종 업종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 인증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업계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어부산은 이번 평가에서 안전 · 편리한 서비스 · 실용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고객가치 창출한 점,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사적으

로 노력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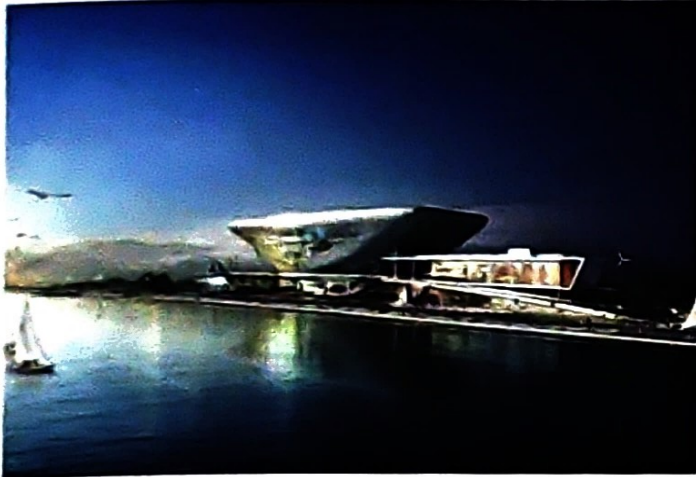
에어부산 김수천 사장은 “취항 3년 만에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고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부산은 2009년 11월, 취항 1년 만에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서비스혁신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으로 가는 해상항로 만들자”

누리마루호 등 선박활용 방안 내놓아, 관광상품 될 수도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해양박물관을 배로 오갈 수 있는 해상항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백석기 부산항국제여객선사 협의회 회장은 지난 4일 “국립해양박물관 앞바다에 바지선을 띄워 선박 접안시설로 활용하고 현재 부산항 투어 선박을 활용하면 육지에서 섬인 동삼혁신도시를 오가는 해상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백 협의회장은 해상항로 확보에 20억원 안팎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길이 50m, 너비 20m짜리 바지선을 띄우고 해양박물관 앞과 바지선을 연결할 잔교를 설치하는데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선박은 누리마루호 등 부산 중구 연안여객터미널 인근을 기점으로 부

산항 내 투어를 하고 있는 선박을 활용하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해상항로가 현실화되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연간 200만명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해양박물관 관람객을 분산시켜 주차난과 교통체증도 완화된다. 태종대유원지 등이 있는 영도구는 도로교통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하다. 여기에다 해양박물관이 문을 열어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영도구의 교통체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해양박물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다를 통한 진입로가 확보되면 동삼혁신도시 호안 쪽 친수공간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부산항만투어와 연계하면 동삼혁신도시가 해양친화학습·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

해양박물관을 육상교통수단으로 찾기 어려운 동부산권 시민들도 기존 부산항 투어 선박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해양박물관을 오갈 수 있게 된다. 평일에는 해양수산관련 4개 공공기관과 9개 기관·시설의 입주자 끝나면 직원들의 출퇴근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동삼동 매립지 61만5천932㎡에 조성되는 동삼혁신도시에는 한국해양연구원과 한국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부산으로 이전하는 4개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입주한다. 또 한국해양대, 부산해사고, 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해양박물관, 조선기자재연구원, 해양환경연구센터, 부산해양경찰서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2011 부산 슬로시티 여행상품 아이디어 개발 공모전 개최

부산시, 한국슬로시티본부, 신라대 부산학센터는 2011 부산 슬로시티 여행상품 아이디어 개발 공모전을 벌여, 접수한 43편 중 11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여행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송상수 씨 등 5명은 ‘슬로마켓 투어’를 통해 구포·자갈치·평화·국제·부산진시장 등 부산의 5개 전통시장을 특성화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매달 100마리의 병아리를 어린이에게 분양해주는 ‘가축사랑행사’와 500인 분의 국수를 1000원에 파는 ‘구포시장 국수데이’ 이벤트를 열어 구포시장을 볼거리가 가득한 시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국제시장은 인근 부산근대역사관 등

역사적 장소를 찾아 20개의 스탬프를 찍어오면 5000원권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시장 속 역사찾기’를, 부산진시장은 ‘한복의 날’을 정해 한복을 입은 손님에게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자갈치시장은 해산물 요리축제, 어린 이미니 낚시대회 ▷평화시장은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아이디어로 제시됐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과 함께 부산의 생태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민지 객원기자

가덕도에 복합 카지노 리조트 조성

부산시, 테마파크 등 연계...체류형 해양관광지 추진

부산 가덕도를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갖춘 체류형 종합 관광휴양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가덕도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차 지문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근 밝혔다. 단순히 카지노 시설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복합리조트와 호텔, 상업위락시설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가덕도 종합개발계획의 1차 관문으로 꼽히는 카지노 유치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구별로는 ▷놀차지구(374만㎡) 국제교류·위락레저 중심 ▷천성지구(287만㎡) 관광휴양 중심 ▷대항지구(83만㎡) 관광휴양·물류지원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별 핵심 유치시설로는 ▷놀차지구 카지노, 테마파크, 호텔, 컨벤션, 외국인전용주거단지, 업무, 상업, R&D연구개발 ▷천성지구 해외동포이주단지, 타운하우스, 해양테마파크, 골프장 ▷대항지구 어촌관광단지, 항공물류, 의료케어, 영화촬영소 등이다.

특히 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데다 김해공항과 가까운 가덕도의

이점을 살려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관광객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세금·언어 장벽·환전이 없는 '4무(無·Free) 자유관광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1조2551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내외 민자 유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놀차·천성·대항 3개 지구 중 사업성이 높은 놀차지구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단계로 오는 2021년까지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지구별 핵심시설을 유치한 다음 2단계로 해양관광레저시설과 함께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과 연계한 공항지원 물류 기능시설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정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가덕도 종합관광 휴양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을 짰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가덕도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내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놀차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치고 오는 2013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중국 최대 여행사, 부산만 오는 상품 잇따라 출시

부산여행 사이트 2달간 20만명...선호 관광지 부상

중국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몰려온다. 중국 최대 여행사인 '중국 청년여행사(CYTS : The China Youth Travel Service Tours)와 '시트립(CTrip)'이 부산만 여행하는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등 부산이 중국관광객 선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국 여행업계 1위 여행사인 'CYTS'는 최근 급속히 늘어난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을 주목해 왔다.

CYTS 한국부서 담당자인 왕성진 주임은 "서울과 제주는 이미 중국인들에게 너무나 알려진 여행지이고,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 중국의 비렁허우 세대(80년대 이후 출생에게 부산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여행지"라며 "쇼핑, 먹거리, 한류 그리고 야구 등으로 대표되는 부산만의 매력적인 문화가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도 부산을 찾은 중국관광객은 40만2000명,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30만6000명, 이대로 가면 지난해 기록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JR 규슈 고속선-바다위 비행기 '비틀호'

부산~대마도 (히타카츠항) 정기운항 정원 200명, 1시간 10분만에 주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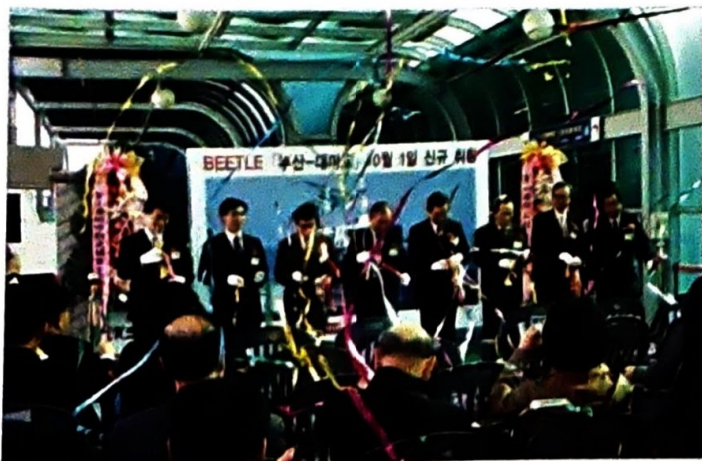
자연과 영원한 신비가 살아 숨쉬는 대마도(쓰시마)에 지난 1일부터 JR규슈고속선(주) (대표이사 마치 타카치) 비틀호(시속 43노트-80km)가 부산-히타카츠 항로를 정기 운항하게 됐다. 바다위의 비행기 라는 별명을 가진 초고속 여객선 비틀호, 승객정원 200명을 태우고 매일 한차례씩 왕복, 그리고 주말에는 2차례씩 왕복운항하게 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 걸린다.

이날 마치 타카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산-대마도 항로 개설로 20년간 운항한 비틀, 그리고 코레일 관광개발의 KTX가 함께 연계한 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 올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대마도 히타카츠항에 입항한 비틀호 ▼

마치 타카시 대표 취항기념사



부산 국제 여객부두에서의 취항기념식 전경



대마도 항 도착 환영 인파가 부두를 꽉 매워 환영한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49.5km

이번에 개설된가미쓰시마(상대마)에는 문명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청정자연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며 진주 양식, 돌돔, 뱀어돔 등 고급어종의 회가 일품이다.

대마도는 한반도로 부터 농업·기술·종교·문화 등 신 문물이 전해지던 창구로 조선통신사 역사 유적이 많아 선인들의 자취를 찾는 역사기행지로 제격이다. 조선통신사는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한 외교사절단으로 임진왜란 이후, 1607~1811년 전후에는 양국 평화와 포로·유민 송환 그리고 우리의 선진문화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비틀호는 취항 첫 날 오전 9:30분 승객 185명을 태우고 중앙동 부산 국제여객 부두에서 항내를 벗어나자 2-3m의 파고에도 탁자에 놓인 음료수가 흔들림 없을 정도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운항된다.

히타카츠항에 입항하자 12척의 어선이 양쪽에서 호위하는 가운데 이곳 주민전체가 부두에 나와 양국기를 흔들며 환영해 준다.

이번에 개설된가미쓰시마(상대마)에는 문명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청정자연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며 진주 양식, 돌돔, 뱀어돔 등 고급어종의 회가 일품이다. 그리고 어달가도 편백나무숲, 5월이면 이곳에서 자생한 이팝꽃이 하얀눈이 내린 듯 절경이다. 특히 이곳 상대마 한국전망대 팔각정에서는 맑은 날이면 부산 해운대, 광안대교가 실루엣처럼 보이고 휴대폰은 로밍없이도 한국과 통화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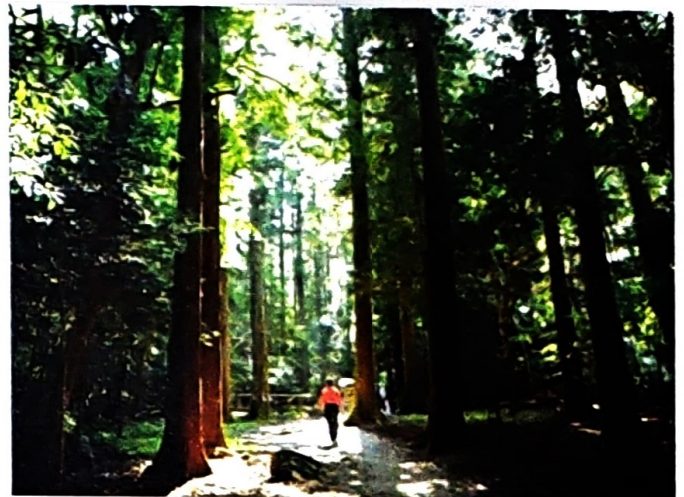
이 팔각정은 1703년 와나우리 육지를 눈앞에 두고 조난, 역관사 108명, 대마도 번사 4명 등 11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갖고가서 전망대를 짓

고 역관사추모비를 세웠다고 한다.

이번 비틀호 운항으로 당일 여행이 가능해져 여행업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세관본부에 따르면 부산항을 통해 대마도를 찾은 한국인이 2008년 6만 4270명, 2009년 4만 3016명, 2010년 5만 4588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일본 대지진으로 배길이 끊겨 지난 9월 말 현재 1만 9720명이 대마도를 찾았다.

김봉오 편집위원장 (btjbusan@hanmail.net)



대마도에는 어디로 가든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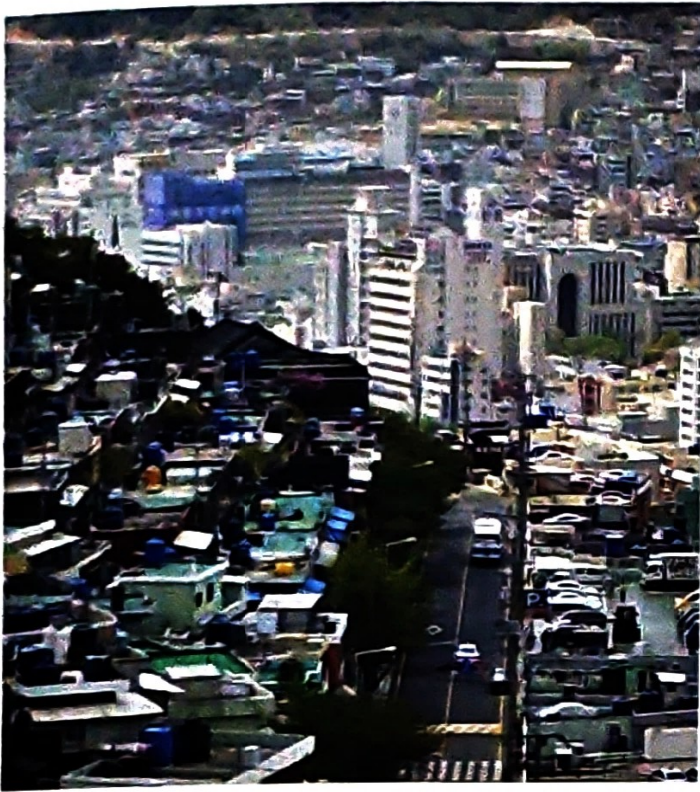


그림처럼 아름다운 대마도 인공해수욕장 "그린파크"



맑은 날 부산 해운대가 아스란히 보이는 팔각정서 기념촬영

증산공원~자성대공원 2km구간 산복도로에 부산진 영상문화테마거리 시민들 삶의 테마로 관광프로그램 마련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인 부산 산복도로에 부산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진 역사문화 테마거리'가 들어선다.

부산광역시시는 2013년까지 국·시비 38억원을 들여 동구 증산공원~자성대공원 2km 구간에 부산진구의 역사를 소개하는 기념관, 관광안내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포,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출발지 영가대, 일신여학교·부산진교회 등 역사현장을 재조명해 관광자원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산복도로를 테마거리로 만들기 위해 △관광안내소 부산진 성 웰컴센터 △부산진 역사문화기념관 △부산진과 동래를 오가던 열차, 경편제도 기념관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살던 판잣집(하교방) 재현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시민들의 삶을 테마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마구간 시설을 분식집으로 꾸미고, 고 이증섭 화가의 판자집 화실을 복원해 미니갤러리로 활용한다. 6·25전쟁 때의 미군 전투식량 상자로 건물을 지어 부산의 먹거리 판매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김대현 객원기자

영주동 민주공원 밑 산복도로에 해안조망 공간조성

부산항이 흰희 내려다 보이는 부산민주공원 산복도로에 해안경관 조망공간이 생긴다.

부산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국·시비 7억8000만 원을 들여 해안경관 조망공간을 건립하는 곳은 중구 영주동 부산민주공원 밑 산복도로(망양로) 카멜롯블루아파트 옆이다. 이곳은 아름다운 부산항의 전경은 물론 산복도로의 옥상주차장, 가파른 계단식길 등 생활·문화 경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당으로 꼽힌다. 국토해양부는 이곳을 1순위로 강력하게 추천했다. 애초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기장군 삼성대와 감서구 가덕도를 잇는 해안선 3062m에 조망 명소 46곳을 조성하는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해안경관 개선 시

범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이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예산이 삭감돼 민주공원 밑 산복도로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곳에 조망 방향에 따라 부스3곳과 전망데크를 설치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모델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부스 앞면을 통유리로 제작해 다양한 조망 각도에 따라 부산항, 산복도로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경관과장은 "부산의 빼어난 해안경관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소규모 미술관 기능을 갖춘 조망공간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아름다운 건축대상에 선정된 '아미산전망대'



부산시는 15일 올해 부산시내 건축상 대상에 부산 시하구 다대동에 신지락이 조성된 아미산 전망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아름다운 건축대상에 부산시하구 다대동에 조성된 아미산 전망대가 선정됐다. 아미산 전망대는 낙동강 하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조성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

서면 특화거리 일대, 높이 10m 첨단 상징물 8개 세운다. 시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부산진구청은 올해 말까지 서면특화거리와 미디어스트리트 등 8곳에 IT 기능이 집약된 상징문주를 세우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높이 10m, 폭 1.2m의 슬림한 형태로 설계된 상징 문주는 특화거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상징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키오스크와 영상 패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46인치 LCD 터치스크린으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서면 지역의 상세한 지도와 함께 맛집, 병원, 쇼핑 등 맞춤형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이용해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낼 수도 있어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치비와 운영비 등 총 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민자유채비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화에스앤씨는 시설물을 준공해 이를 부산진구여가부채납하는 대신 10년간 관리운영권으로 상업 광고를 유치하는 등 투자비를 회수할 예정이다.



높이 10m 첨단 상징물 조감도

제3회 부산갈맷길 축제 시민 그린워킹! 테마걷기, 문화공연도 풍성

지난 10월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부산 전역에서 '일쑤!! 갈맷길 칭칭나네'란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길걷기 행사와 관련 이벤트를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8일 개막행사와 ▷구·군시민그린워킹 ▷황금여로걷기 ▷사포지향 갈맷길200리 걷기▷명상과 함께하는 갈맷길 걷기 ▷천마산 달빛걷기 등 다양한 걷기행사와 전야행사로 갈맷길 세미나가 열립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막행사에서는 대학로 거리아티스트 조문근을 비롯한 락락라스트라다, 얼라리오 공연 등과 워킹화, 건강검진권,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도 나누어 주었다.

이효영 기자



부산갈맷길 축제 세미나 개최 '길' 전문가 등 20여명 한자리...바람직한 방향·비전 논의 해

제주 올레, 지리산 둘레길, 강릉 바우길, 군산 구불길, 남해 바래길, 통영 길문화연대 등 전국의 길 전문가 및 트레일(탐방로) 관계자가 지난7일 길 국제문화센터에서 길 축제의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부산 길 축제의 평가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부산발전연구원 이동현 박사는 "다른 축제와 달리 길 축제는 참가 시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100% 참여자가 되고, 동참하고 나면 종합선물세트를 받아가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서 "일상의 길 걷기를 일상의 길 축제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걷는 길이 살아야 길 축제도 산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안은주 제주올레 사무국장은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올레 길을 배경으로 올레꾼, 마을 주민, 공연자, 자원봉사자 모두가 함께 하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한 덕분에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강영조 동아대(조경학과) 교수, 정휘 '한국의

길과 문화' 이사, 서영수 부산축제조직위 사무국장, 박창희 국제신문 부국장이 토론에 가세했다.

강영조 교수는 "길 축제가 도시환경을 변혁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촉매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서영수 사무국장은 "축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콘텐츠가 좌우한다"면서 콘텐츠 발굴 및 운영 관리조직의 전문화를 주문했다.

정휘 이사는 축제마당에 어린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소프트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창희 부국장은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수영야류·동래야류의 길놀음에 주목, 걸으면서 지역문화 체험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3회 부산갈맷길축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절정을 이루고 있는 승학산 억새군락지

가을하면 단풍이다. 그러나 단풍만큼 가을을 대표하는게 억새다. 승학산억새는 부산 최고의 군락지다. 도심에 가까이 있는 승학산은 가을의 억새장관을 낙동강 조망과 함께 볼 수 있다. 억새 탐방코스는 동아대 하단 캠퍼스와 서구 꽃마을 동네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된다.



금정산 금샘(金井)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금정산 금샘(金井) [향토 문화제 1회]을 천연기념물 지정 촉구 대책위를 결성,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금샘(金井)은 고당봉 동쪽에 위치한 화강암 꼭대기에 만들어진 둘레 3m, 깊이 20cm 규모의 자연우물이다. 예부터 금샘에 물이 마르면 큰 재앙이 온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다행히 금샘 주변에 있는 안개 덕분에 웬만해서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이름도 금샘에서 비롯됐다.

대책위가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금샘이 모양과 위치가 매우 특이한데다 신화적 배경까지 갖추고 있는 등 천연기념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서명운동은 금정산성에서 시작된다. 대책위는 이번주부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금정산성 북문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생각이다.



부산 금강공원 일대에 최첨단 놀이기구 등 '도심형 드림랜드' 추진

부산시는 동래구 금강공원과 옛 동래동물원 일대에 시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초식동물원,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최첨단 놀이기구, 최신행 케이블카를 갖춘 '도심형 드림랜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26일 밝혔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전 이진복(부산동래) 국회의원, 조길우 동래구청장 등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강공원 시민체육공원 정비공사 준공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강공원 재장비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부산시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재난 대처법을 익힐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

테마파크(사업비 340억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비 6억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

시는 또 금강공원에 어린이들이 토끼 등 6종류의 동물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는 초식동물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비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키자니아는 서울 잠실 등 세계 11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동래동물원 소유주가 동물원 부지에 이 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금강공원 내 낡은 놀이시설과 케이블카를 시설 투자를 통해 최신행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민간 소유주와 협의할 계획이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

가을이라는 주제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이 평생 추억이 남을 지리산둘레길 문화유적을 답사하기 위해 지난 8일 길을 나섰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답사대장 장순복 (대륙항공여행사 대표이사)씨는 30여년간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음을 보고 이들 유적지를 누군가가 세상 밖으로 꺼집어 내어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2005년 5월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을 결성, 매주 문화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이번 답사가 335회(회원수 2,195명)째를 맞게 되는데 답사지 선정 및 모든 프로그램은 장대장이 직접 짠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 한양아파트 앞 6시 50분, 81명이 2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답사단 일행이 버스가 출발하자 아래위 흰색 캐주얼에다 모자를 깊숙히 눌러쓴 장대장이 1호차에 탑승, 오늘 찾게되는 역사 유적지에 대해 막힘없이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설한데 이어 "지금 부산이 영화제로 시끄러운데 우리는 고요를 찾아 떠나는 한마리 새가 됩니다. 무심한 삶을 견디지 못한 우리는 오늘 지리산을 찾아 그 품속에 들어가 꽃도 되고 소쩍새 불려 곁에 앉혀놓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어 산으로 갑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퍼런 단풍은 세상의 번뇌와 근심을 모두 안고 절규의 몸부림으로 핏빛을 토하며 세상과 이별함이 억울하다는 듯 우리를 유혹하겠죠"라고 운을 뗀 장대장은 버스가 남해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답사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가 하면 정치·경제·사회·여행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가운데 버스가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에는 잘 익은 벼가 황금물결을 이룬다.(올해는 벼 수매가 높게 책정돼 농민들의 주름살을 편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나 혼자 중얼거려 본다)

9시, 버스는 어느덧 함양 상림숲에 들어선다. 이 상림숲은 통일신라 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이며 40여종의 낙엽관목 등 116종의 나무가 1.6km 폭을 따라 80-200m 폭으로 펼쳐져 있다.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10시, 상림숲을 출발한 버스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꼬불 꼬불 오도제를 지나 지리산 제1관문을 뒤로하고 지리산 조망공원에서 천왕봉을 조망한 후, 11:20분 휴천면 송정리 몽유담에 도착

한다. 화강암으로 된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인 모습이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길 언덕위는 구룡정이라는 정자가 길나선 나그네의 쉼터가 되어준다.

12시, 지리산 흑돼지에 넉넉한 주인의 인심을 담아 그릇이 비워지면 금방 채워주는 바람에 모두가 배불리 점심을 먹고 앞에 위치한 달궁계곡에 발을 담구는 답사객들의 웃음소리가 정답다.

14시, 해발 1170m 정령치, 구름도 쉬어간다는 운해가 절경인 정령치 뒤편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암벽에 마에불상이 모진 눈보라와 비바람에도 그저 자애로운 모습이다.

15시에 출발, 대한민국에서 둘째라면 서러워 할 악명높은 지그재그 길따라 30여분 내려오니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계곡 구룡폭포에 도착, 구룡폭포는 9마리 용이 이곳에 내려와 놀다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왕복 1000여개의 계단 때문에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내려가지 않는게 좋을 듯.

16시 30분, 운봉읍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서어나무숲, 시인 복효근의 서어나무 숲의 배경이 된 곳, 또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그네 타던 모습을 찍은 배경이 된 곳이다.

17시 30분, 운봉읍비전리 국악의 성지, 돌담길에 둘러쌓인 국창 박초월 생가에는 주인 잃은 한무더기의 구절초가 내방객을 맞이한다. 그리고 옆에는 이성계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곳으로 황산대 첩비지가 있다.

답사일정을 모두 마친 일행은 88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향한다.

(주)대륙항공여행사 | (051)463-0034

김봉오 편집위원장 (bjbusan@hanmail.net)

Daumcafe (<http://cafe.daum.net/museummystery>)

가을이 익어가는 지리산 둘레길



1. **황양심림숲** | 중국에서 돌아와 신라시대 황양 태수급 지낸 고운 의지인 선생이 수해갈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상림숲은 국내에서 제일 아름다운 숲이다. 7~8월이면 단풍, 9월이면 30여만포기의 꽃무릇, 그리고 10~11월이면 단풍이 참 좋다.



2. **달궁계곡** | 달궁계곡의 시원한 물줄기는 힘들게 찾아온 관광객들의 몸과 마음을 한꺼번에 감싸준다. 그리고 주위에는 가을하늘 빛깔은 산수유, 구절초, 들라꽃 등 이름도 모르는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다.



3. **용유담** | 지리산 대표적 계곡인 백부동 계곡, 한신계곡, 침선계곡 물이 만나는 곳이 용유담이다. 오랜 세월동안 지반이 융싱하면서 생긴 기암괴석, 독특한 색과 모양이 만로 표현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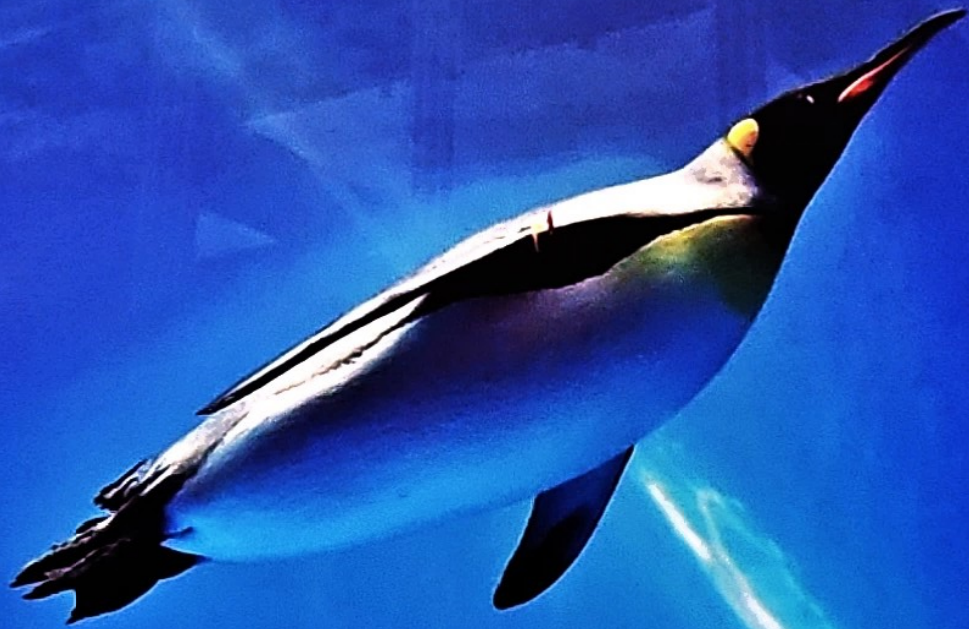
4. **지리산 제1은 오도제** | 함양에서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산마루골 오도제(법화산과 삼봉산을 두고 그 사이 부문에 형성된 고개로 백송시의 청매도사에 의해 도를 깨우쳤다하여 오도제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한다)라 부르고 있는데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기 위한 첫관문이라고 해서 '지리산 배문'이라고 한다.



5. **정령치** | 구름도 쉬었다 쉬는 정령지(해발 1172m)는 미얀의 왕이 신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씨 삼을 가진 사림이 상을 받아 지키게 했다고 전해진다. 지리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동으로는 미래봉, 뱀사골 계곡, 서쪽으로는 천왕봉, 반야봉, 북으로는 남원사가 저기 내려다 보인다. 고기삼거리-정령치-추진면 까지 이르는 7.5 국도 30여km의 지그재그 길로 운전하기가 힘든 악명 높은 길이다. 그러나 경치는 일품



6. **구룡폭포** | 남원시 추진면 호경리에 위치한 구룡폭포는 그 옛날 음력 4월 8일이 되면 9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곳의 폭포에 용 한마리씩 노닐다 승천했다는 전설, 40여개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서서 오랜 세월의 물살이 만들거리는 바위를 만들고, 9개의 소를 만들었다 한다. 천이 온 무심한 낙엽들이 떨어져서 빠른 물살에 금방 떠내려간다.



NAGASAKI

Copyright©. NAGASAKI CITY PUSAN OFFICE. All Rights Reserved / Photograph by Hajime Nakamura / Contact : SIDDOLL@HOTMAIL.COM
Nagasaki Penguin Aquarium : <http://penguin-aqua.jp/korean> / Publication : <http://blogs.yahoo.co.jp/kapaguy/59409356.html>

www.paradisecasino.co.kr

釜山乐园

PARADISE
CASINO
BUSAN



I'm in PARADISE

THE MEMBERS OF PARADISE GROUP™

WALKER HILL | BUSAN | GOLDEN GATE | JEJU GRAND | JEJU LOTTE



Paradise Hotel 1F 1408-8 Choong-dong, Haeundae-gu, Busan, Korea Tel +82-51-749-3550